

# 친밀도와 담화 전개 양상에 관한 일고찰

-의견 불일치 장면을 중심으로-

김 아 란\*

(e-mail : kimahran@sophia.ac.jp)

##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4.1. 친밀도 「高」의 경우 |
| 2. 선행 연구 및 연구 목적 | 4.2. 친밀도 「中」의 경우 |
| 3. 연구 방법         | 4.3. 친밀도 「低」의 경우 |
| 4. 분석 결과 및 고찰    | 5. 나가며           |

キーワード：親密度(Intimacy), 談話展開(Discourse Development), 意見不一致(Disagreement), 不同意(Disagreement), 自然會話(Natural Conversation)

## 1. 들어가며

한국어와 일본어는 기본 어순을 비롯하여 격조사와 경어 체계의 존재, 한자어의 사용 등 유사점이 많은 언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인과 일본인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상당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은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들(任·井出2004, 齊藤2005, 洪珉杓2007, 임영철2008 등)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한국인들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일본인들의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한일의 언어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은 FTA(Face Threatening Act) 장면에서 더욱 부각되리라 여겨진다. 상대방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장면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FTA의 하나이다. 가능한 한 상대방의 Face(面子, 체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

\* 上智大学, 准教授, 日韓対照言語学

이 아니다. 너무 간접적으로 말하면 화자의 의도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어렵고,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의견 불일치 장면에서 각각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살펴보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본고에서는 대조분석에 앞서 일본인 대학생들의 실제 담화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다.

## 2. 선행 연구 및 연구 목적

의견 불일치 장면에서의 담화 양상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우선 일본어의 부동의(不同意)에 관한 연구로 大塚(2005), 木山(2005)가 있고, 일본어모어화자와 영어모어화자의 스타일을 비교한 연구에는 白井(2009), 일본어모어화자와 중국어모어화자의 스타일을 비교한 연구에는 楊(2015), 일본어모어화자와 한국어모어화자의 스타일을 비교한 연구에는 李吉鎔(2001,2003), 李善雅(2001), 張允娥(2017)이 있다.

우선, 大塚(2005)는 일본인 대학생들의 그룹 토론을 데이터로 하여 부동의의 구체적인 출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화자가 교체되는, 즉 턴(turn)의 개시부에서는 「でも」「というか・というより」「だって」「いや」「違う・ではなく」「ええ?」와 같은 언어 형태나 「難しいなあ」「怖いなあ」「きつい」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 얼버무리거나 포즈(pause, 休止)와 같은 망설임을 통해 부동의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무턱대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인 후에 부동의를 표명하거나(受け入れ+不同意),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부동의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sup>1)</sup>.

木山(2005)는 상대방이 친한 친구인지, 처음 보는 사람인지에 따라 부동의를 나타내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였다. 부동의를 실질적인 것과 의례적인 것(예: 칭찬에 대한 겸손)으로 나누는데, 처음 보는 사람과의 대화보다 친한 친구와의 대화에서 실질적인 부동의를 더 많이 나타내며, 실질적인 부동의를 사실 부정

1) 질문을 통해 부동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Beebe & Takahashi(1989)와 白井(2009)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예:行っていないよ)과 의견 부정(예:でも過疎化はしないと思うけどな)으로 나뉘는데, 의견 부정 역시 친한 친구와의 대화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白井(2009)는 일본어모어화자와 영어모어화자에게 그림 카드를 사용하여 스토리를 구성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부동의의 간접적 발화 행위를 비교하였다. Grice의 회화의 격률 중 ‘양(量)의 격률’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일본어모어화자는 발화시 청자와 공유하고 있는 지각(知覚) 가능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거나 질문함으로써 부동을 나타내는 반면, 영어모어화자는 발화시 청자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 언급하거나 질문함으로써 부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楊(2015)는 일본어모어화자와 중국어모어화자의 부동의 발화에 사용된 모달리티 형식을 비교한 연구이다. 분석 결과, 중국어모어화자가 일본어모어화자보다 부동을 나타내는 빈도가 높고, 명제(命題)만으로 부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들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인의 일본어 학습에도 영향을 미쳐 중국인의 일본어는 모달리티 표현이 적고, 그 대신 중도종료발화문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부동의에 관한 한일대조연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李吉鎔(2001)은 반대 의견을 표명할 때의 담화 구조 및 스키마(Schema)를 분석한 연구로, 일본어는 「談話支持ストラテジー表現<sup>2)</sup>→理由節→提案節」의 패턴이 확인되는 데 반해, 한국어는 비교적 자유롭게 담화가 구성된다고 하였다. 李吉鎔(2003)은 장면의 改まり度에 따라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 형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는데, 일본어는 改まり度에 따른 명료한 차이가 없는 데 반해, 한국어는 改まり度에 따라 행위 지시 표현 형식의 선택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改まり度가 높은 장면에서는 丁寧体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청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希望文, 判断文, 非情報提供要求文 등이 사용된다고 하

2)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거나 의견 표명 자체를 행하지 않는 이른바 談話放棄ストラテジー表現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A.へりくだり表現(例:私が言うのも、ま、そういう筋合いでも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B.見せかけの賛成(例:そこもいいとは思いますが)、C.聞き手尊重表現(例:こう、ま、それなりに決めたことだと思うけど)、D.問いかけ表現(例:今年っもうこれはこうやって行っているのも、ほとんど決定なん?)、E.問い詰め表現(例:今までこういうところ行って全然嫌じゃなかったですか)、F.禁止表現(例:そこはやめろ)、G.意見表明(例:これは個人的意見なんです)、H.反対表明(例:実は僕は反対意見を持っています)、I.話題言及表現(例:今回のゼミ旅行の行き先なんですけれども)、J.場面言及表現(例:せっかく今こういう話し合いをしているし)、K.内容言及表現(例:だいたい多数意見が通って、先生の力が絶対やから、それに従わなあかんのわかるけど)가 談話支持ストラテジー表現에 해당한다.

었다.

李善雅(2001)은 20~30대 대학원생(전원 남자)를 대상으로 role play(역할 연기)에 의한 토론 장면에서의 언어 행동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일본어모어화자가 自己主張優先型보다 相手配慮型을 선호하는 데 반해, 한국어모어화자는 相手配慮型보다 自己主張優先型을 선호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相手配慮型의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張允娥(2017)은 친한 사이의 동성 간의 대화를 데이터로 하여 부동의와 부정적 평가에 해당하는 발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동의와 부정적 평가는 여자들의 대화보다 남자들의 대화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고, 여자들의 대화에서는 의견 대립이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교섭을 통해 대립을 해결하는데 반해, 남자들의 대화에서는 대립이 트러블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교섭에 실패하여 양자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대화가 전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에 의해 일본어와 그 밖의 외국어(영어, 중국어, 한국어)의 부동의 전개 양상에 대해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데이터가 일상 대화, 토론, 롤 플레이 등 각각 성격이 다른 담화라는 점이다. 특히 롤 플레이의 경우, 화자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지시받은 대로 역할 연기를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대화 제공자들의 친밀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대화 제공자가 서로 친한 관계인 연구(白井2009, 張允娥2017)가 있는가 하면, 그냥 친구 관계라고만 기술한 연구(楊2015)도 있다. 그 중 木山(2005)는 일상 대화를 데이터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친한 친구와의 대화와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木山(2005)는 친밀도를 「高·低」로 나누었는데 친밀도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변동하는 과정에서 대화 방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대화 참가자들의 친밀도를 「高·中·低」의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부동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대학생의 실제 담화를 데이터로 하여 부동의의 담화 전개 양상을 관찰하였다. 일본인 대학생 2명을 기준자로 삼고, 각각 친밀도가 다른 3명(전원 같은 나이)과 1대 1로 대화하도록 하였다. 친밀도가 「高」 「中」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준자에게 데려오도록 부탁하였고, 친밀도 「低」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뢰자가 기준자에게 소개하였다. 친밀도 「高」 「中」에 대한 판단은 기준자의 주관에 맡겼는데 두 사람이 알게 된 계기, 알고 지낸 기간, 공감도, 친밀도 등에 대해서는 녹음 전에 확인하였다.

대화 제공자에게는 녹음 전에 의견이 갈리는 20개의 화제가 적힌 종이<sup>3)</sup>를 나눠 주고, 자신의 의견에 동그라미를 치게 하였다. 녹음이 시작되면 우선 20개의 화제 중 본인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화제와 일치하지 않는 화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한 후, 의견이 일치하는 화제에 대해 10분, 일치하지 않는 화제에 대해 10분 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sup>4)</sup>. 한 페어당 녹음 시간은 약 25분이다. 녹음은 2016년 2~3월에 실시하였다. <표1>은 기준자의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표2>는 상대방에 대해 기준자가 느끼는 친밀도와 대화 제공자들의 코드를 정리한 것이다.

3) 대화 제공자들에게 제시한 화제는 다음과 같다. : ①死刑制度：賛成・反対、②安樂死：賛成・反対、③未就学児の英語教育：賛成・反対、④婚前同棲：賛成・反対、⑤小学生の化粧：賛成・反対、⑥インターネットの実名制：賛成・反対、⑦夏の避暑地として行きたいのは...：山・海、⑧旅行に行ったらあなたは...：できるだけ多くの名所をまわるタイプ・一カ所をじっくり楽しむタイプ、⑨子供とゲームする時、あなたは...：わざと負けてあげる・真剣にやる、⑩職場の飲み会は仕事の延長だと...：思う・思わない、⑪恋人の浮気を...：許せる・許せない、⑫配偶者の浮気を...：許せる・許せない、⑬結婚するなら...：私が好きな人・私を好きな人、⑭配偶者の条件、一つしか選べないとしたら...：性格・外見・経済力、⑮親が反対する結婚は...：押し切ってする・しない、⑯結婚式(披露宴含む)は...：必ずあげる・あげなくてもいい、⑰あなたが既婚者としましょう。配偶者の実家は...：近い方がいい・遠い方がいい、⑱あなたが既婚者としましょう。自分の実家は...：近い方がいい・遠い方がいい、⑲子供を一人だけ産むとしたら...：男の子・女の子、⑳あなたが男性なら育児休暇を申請...：する・しない

4) 한 가지 화제에 대해 대화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2~3개 정도 정하도록 부탁하였다.

〈표1〉 기준자 정보

기준자	태어난 연도	성별	직업	출신지	부모님 출신지
JF1	1992년	여자	대학생	東京	東京
JF2	1991년	여자	대학생	神奈川	東京

〈표2〉 대화 상대방에 대한 기준자의 친밀도와 대화 제공자들의 코드

기준자	상대방	친밀도	기준자	상대방	친밀도
JF1	JF1A	高	JF2	JF2A	高
	JF1B	中		JF2B	中
	JF1C	低		JF2C	低

정량적 분석을 할 만큼의 데이터 양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담화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친밀도를 JF1과 JF2를 기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 역시 JF1과 JF2의 발화임을 밝혀 두겠다.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宇佐美(2005)를 참고하여 문서화하였다<sup>5)</sup>.

5) 본고에서 사용한 기호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全角] 1 發話文の終わりにつける。

「、」 : ①[全角] 1 發話文および 1 ラインの中で、日本語表記の慣例の通りに読点をつける。②發話と發話のあいだに短い間がある場合につける。

「?」 : 疑問文につける。疑問の終助詞がついた疑問形式になっていなくても、語尾を上げるなどして、疑問の機能を持つ發話には、その部分に文末(發話文末)あら「?。」をつける。倒置疑問の機能を持つものには、發話中に「?、」をつける。

「[↑][→][↓]」 : イントネーションは、特記する必要があるものを、上昇、平板、下降の略として、[↑][→][↓]を用いる。

「/少し間/」 : 話のテンポの流れの中で、少し「間」が感じられた時につける。

「/沈黙 秒数/」 : 1秒以上の「間」は、沈黙として、その秒数を記す。

「…」 : 文中、文末に関係なく、音声的に言いよどんだように聞こえたものにつける。

「< >{<}」「< >{>}」 : 同時發話されたものは、重なった部分双方を< >でくくる。

「( )」 : 短く、特別な意味を持たない「あいづち」は、相手の發話中の最も近い部分に、( )にくくって入れる。

「< >」 : 笑いながら發話したものや笑い等は、< >の中に<笑いながら>、<2人で笑う>などのように説明を記す。

「『 』」 : 視覚上、区別した方が分かりやすいと思われるものは『 』でくくる。

「###」 : 聞き取り不能であった部分につける。その部分の推測される拍数に応じて、#マークをつける。

「「 」」 : トランスクリプトを公開する際、固有名詞等、被験者のプライバシーの保護のために明記できない単語を表す時に用いる。

## 4. 분석 결과 및 고찰

분석 결과, 친밀도에 따라 부동의를 표명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4.1에서는 친밀도가 「高」에 해당하는 상대방과의 대화, 4.2에서는 친밀도가 「中」에 해당하는 상대방과의 대화, 4.3에서는 친밀도가 「低」에 해당하는 상대방과의 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4.1. 친밀도 「高」의 경우

JF1과 JF2의 발화를 분석한 결과, 친밀도가 「高」에 해당하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는 친밀도 「中」 「低」의 경우와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은 JF1과 JF1A가 “당신이 남자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한다·신청하지 않는다”라는 화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다. 기준자 JF1은 “신청한다”, JF1A는 “신청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sup>6)</sup>.

(1)JF1A : 『あなたが男性なら育児休暇を申請する?<しない?>{<}』。

JF1 : <する>{>}。

JF1A : なんで?。

JF1 : だってさ、「人名1」先生も言ってたけどさ、子供がちっちゃい時ってほんと一瞬しかないじゃん?。その(うん)大きくなるけー、経過?[↑](うん)てさ、もう二度とないことだからさ。(うん)そこーで、ちゃんと子育てに携わった方がいいと思う。

JF1A : うん。

JF1 : 全く子育てには関わらないってこと?。 [↑]もし男性が……。

JF1A : いや、だって『休暇を申請』だから別に申請しなくてもとれるさ(うん)時間で、あの一、<関わればいいんじゃない?>とって>{<}。

JF1 : <でも、それならさ>{>} 「JF1Aのあだ名」が証券<sup>7)</sup>じゃん?、 [↑] (うんうん)これからいくの。ほんとにさ、夜遅く帰ってきて、家にも帰らない生活にもなるかもしれないじゃん?、 [↑]もしかしたら。(うん)それだったらさ、全然子育てに関われないじゃん。

6)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에 밑줄을 치도록 하겠다.

7) JF1A가 졸업 후 일하게 될 직종을 가리킨다.

JF1A : うん、うん。でも、なんか自分が男性なら (うん) 奢ってるわけじゃないけどすごい稼げる気がするのね、[↑] (うん) 自分が。(うん) そしたら別にわざわざ育休とって出世コース外れるよりも (うん) しっかりビジネスの方で将来もちゃんと子供が学校行けるようにさ (うん) 稼ぐ方 (うん) でいいかなって思って。しかも (うん) 別に育休申請しなくても、まあ土日とかでもいいしさ。有給とれとは言われるし、どうせ。

JF1 : うーん、休めるのかな?、ちゃんと。

기준자 JF1의 발화를 살펴보면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명하면서 문말에 「じゃん」을 붙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 또한 「全く子育てには関わらないってこと?」라고 추궁하는 듯한 질문을 던져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간접적인 담화 전략도 확인되었다. 완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JF1A에게 JF1가 「うーん、休めるのかな?、ちゃんと。」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발화는 의문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そんなに簡単に休めるはずがない」라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모어 화자가 질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再考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Beebe & Takahashi(1989)와 白井(2009)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위의 예문이 그에 해당한다고 여겨진다.

(2)도 JF1과 JF1A의 대화인데, 여기에서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준자 JF1는 “용서할 수 있다”, JF1A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각각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2)JF1 : 恋人だったらもうすごい好きでも別れるってなったらもうそこまでじゃん。(うん) だけど結婚しちゃったらさ、離婚とか面倒くさくない?、[↑] すごく。(うん) だからそれなら一回ぐらいなら許しちゃうかも。

JF1A : えー、私許さないね。ずっと根に持つね。離婚はしなくても根に持つね。ちゃんと償えよって思いながら生活すると思う>{<}。

JF1 : <償う>{>}ってなに?。こわ。

JF1A : えっ、だって浮気ってことはさ (うん) 時間もお金も労力も (うん) 知らない相手にかけてるんだよ。[↑] (うん) その時間とお金と労力、私にかけてられたよねってなったら (うん) その分こっちに努力してねって思う。

JF1 : <笑いながら>えー、怖い。

(2)에서는 JF1이 「怖い」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를 통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sup>8)</sup>. 한편 (1),(2)를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うん」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자신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음을 나타내는 시그널로, 결코 동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3)은 두 번째 기준자 JF2가 친밀도 「高」에 해당하는 JF2A와 나눈 대화인데, 연인의 바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JF2는 “용서할 수 있다”, JF2A는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3)JF2A : だって浮気ってことはさ、彼女のことは好きなんだけど (うーん) うーん、うーん、その一、ちょっと新しく現れた子が、(うん) 子にもちょっとわーってなってるって感じでしょ?。[↑]

JF2 : あ、でもさ、もしかしたら一時のさ、例えば、まあ、お酒が入ったとかさ...

JF2A : あー、そういう人はもうダメですよ。(あー) お酒が入ったからとかいってくゆるくなっちゃうのは>{<}。

JF2 : <一回だけだったら>{>}。

JF2A : その人もう一回するよ、絶対。

JF2 : うち3回目で怒るかな。

JF2A : 優しいね。

JF2 : いや怒るけど (うん) 注意はするけど (うん) でもなー、2回目ぐらいはまあしょうがないんじゃないみたいな。

JF2A : そうなん、そんなもんなのかな。

JF2의 발화를 살펴보면 「でも」「いや」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견에 반론하며 부동의를 나타냄과 동시에 문말에 「かな」「みたい」와 같은 형태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이 단정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4)도 JF2와 JF2A의 대화인데 여기에서는 (2)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평가로 부동의를 나타내고 있다.

(4)JF2A : まあ確かに、結婚しないんだっただまだ (うーん) 許せるかもしれないけど。

JF2 : 基本は『許さない』?。

JF2A : 許したくないね。

8) 부정적인 평가를 통해 부동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大塚(2005)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JF2: うーん、<笑いながら>怖いですね。

JF2의 「怖いですね」는 부정적인 평가를 丁寧体로 나타냈다는 점, 웃음이 수반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非丁寧体에서 丁寧体로의 업시프트(up-shift)<sup>9)</sup>는 화자가 청자에 대해 심적 거리를 확보할 때 사용되는 담화 전략이다. 업시프트를 통해 심적 거리를 확보하면서도 웃음을 수반하여 발화 장면이 어색해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업시프트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아냥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친밀도가 어느 정도 보장된 사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거나 말투를 부드럽게 해야 하는 등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은 담화 전략이다.

#### 4.2. 친밀도 「中」의 경우

이어서 친밀도 「中」에 해당하는 친구와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친밀도 「高」에 해당하는 친구와 이야기할 때와 비교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見せかけの賛成」(李吉鎔2001), 「受け入れ+不同意」(大塚2005)가 이번 데이터에서도 발견되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도중에 끊지 않고, 마지막까지 들은 후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JF1의 대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5)는 JF1과 JF1B가 “결혼 후 친정은 가까울수록 좋다, 멀수록 좋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JF1은 “가까울수록 좋다”, JF1B는 “멀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5) JF1B: でも近くないと近くないで、なんかまた別の楽しみがあるっていうか。<なんだろううねー>{<}。

JF1: <たまに会うのが楽しみみたいな?>{>}。[↑]

JF1B: うーん、かな?。[↑]

JF1: 帰省が楽しみになるとか?。[↑]

JF1B: かもしれない。あとはたぶん(うん)なんかうちの親?[↑](うん)を見てて、うちの、そうだね。えーと、お母さんのお母さんがすごい家から200m……。

9) 非丁寧体에서 丁寧体로의 이행을 스피치레벨 업시프트(speech level up-shift), 丁寧体에서 非丁寧体로의 이행을 스피치레벨 다운시프트(speech level down-shift)라고 한다.

JF1 : おばあちゃん?。[↑]

JF1B : そうそうそう、<笑いながら>おばあちゃん、おばあちゃん。200m先に住んで  
て(うん)で結構よく来るのね。[↑](うんうん)ママがそれすごい“は—また  
来て—”みたいな。

JF1 : そうなんだ。

JF1B : 結構近いもの(うん)ちょっと問題だなと思って。(へ—)あんまりそういうのた  
ぶん見て育ったから(うん)あ—、自分はそっちじゃない方がいいなって。

JF1 : う—ん、自分の環境はあるね。

JF1B : う—ん、そうそう。

JF1 : 私も今一緒に住んでるからさ、(うんうんうん)家族みんな。だから(あ—)お  
ばあちゃんとかおじいちゃんが(うんうんうん)いたからこそできたこともいっぱいあ  
るし。

JF1B : あ—、そうだね。

JF1 : 助けてもらったり、(うんうん)あと、まあさみしい思いを(う—ん)しなかったとい  
うものもあるしね。(うん)まあお母さんが専業主婦だけど。(うんうんうん)だから  
絶対に(うん)親は、自分の親は…。相手の親はまあ(うん)行くのが面倒く  
さいっていう<理由だね>{<}。

JF1B : <そうだね>{>}。う—ん。

JF1 : 自分の親は近い方がいいなって思うけどな—。

JF1이 JF1A와 대화할 때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후 상대방의 의견을 물  
었던 것에 반해, JF1B와의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물어본 뒤, 「自  
分の環境はあるね」와 같은 발화를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  
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たま  
に会うのが楽しみみたいな?」「帰省が楽しみになるとか?」「おばあちゃん?」과 같은 발  
화를 삽입하여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상대방  
의 이야기를 거들고 이야기하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sup>10)</sup>. 그러나 마지막

10) JF1A와 대화할 때보다 「じゃん」의 사용이 줄어든 것도 특징 중 하나이다. 빈번한 동의 요구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친밀도가 낮아지면서 「じゃん」의 사용 횟수도 적어진 것  
이라 여겨진다. 「まあ」와 같은 필러(filler)가 많아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山根(2002)는 필러가  
유성휴지(有声休止, filled pauses), 얼버무림(言いよどみ, hesitation phenomena)의 일부로, 텍스트 구  
성에 관한 기능, 화자의 정보 처리 능력을 표출하는 기능, 대인관계에 관한 기능이 있다고 지적하  
였다. 同연구는 화자가 청자의 기분을 배려할 때 필러가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본고의 데이터에서  
나타난 필러도 청자 배려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여겨진다.

발화 「自分の親は近い方がいいなって思うけどな」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늘어났지만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는 않고 있다.

다음의 예문은 JF1과 JF1B의 대화의 후반부인데, 마지막까지 JF1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6) JF1B : ふるさどっていいな一ってすごい思うようになったし、帰るともっといたいなとか思うんだけど、(うん) でもなんだろうね。それとはまたちょっと別で(うん) うーん、一緒に住むってなると(うん) ちょっと違うかな。

JF1 : 一緒に住むとなるとね。(うん) 私も自分の結婚生活(うんうん) 考えると親と一緒に住むと考えると(うんうん) 思うけど、(あー) 近くにいる(うんうん) いるに越したことはないかなと思う。

다음은 JF2와 친밀도 「中」에 해당하는 친구 JF2B와의 대화인데, 미취학아동의 영어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JF2는 찬성, JF2B는 반대 입장이다.

- (7) JF2B : その一、最初にあの、きれいな日本語を勉強さ#、(うん) 話せるようになってほしいのね。[↑] なんかきれいなに、普通に正しい発音とか(うん) 正しい敬語の使い方とかをきちんとマスターしてから次の言語に行ってほしいし。

JF2 : あー、そういうことかー。

JF2B : そう。で、なんか私たちだってさ、留学すればさ、あの一、まあ、ある程度はさ、言語身につくわけじゃん。(うんうんうん) だからまあ、あとでもいいんじゃない、なんか耳はね、なんか(うんうん) 最初の方がいいっていうけど。うーん、でも最初はきれいな日本語を話すための勉強に力を注いでほしい、かもしれない。

JF2 : なるほど。

JF2B : うん。

JF2 : ちは(うん) なんだろう。なんかさ、日本人の人って(うん)すごい文法とか(うん) 単語とか難しいこと知ってるのに話す、になると(うん) みんななんか嫌がるの。

JF2B : そうだね。

JF2 : なんかそれをたぶん3歳とかで(うん) なんも考えてないときに何か言えば(うん) まあ別に間違っても(うん) こう、なんだろう。とりあえず話そうみたいな(うんうん) 気分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みたいな。ただ歌ってるだけでも(うんうんう

ん) あ、英語って別になんかちょっと一言いっただけで (うん) 会話なり立つんだ  
みたいな。

JF2B : まあね。

JF2 : ハードル下げたい、みたいな、感じ。

JF2의 대화를 살펴보면 「そうゆうことか」「なるほど」と 같은 발화를 삽입하여 상대방이 이야기하기 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발화문에서는 「みたいな」의 뒤에 「感じ」를 덧붙여서 자신의 발화가 단정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sup>11)</sup>. 그러나 JF1의 대화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늘어났으나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지는 않았다.

### 4.3. 친밀도 「低」의 경우

마지막으로 기준자들이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에서 대립되는 의견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두 기준자 모두 상대방이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丁寧体を 대화의 기저로 삼으면서 부분적으로 非丁寧体を 사용하였다. 감탄사나 발화 레벨의 あいづち(맞장구)를 쳐가며 자신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상대방이 이야기하기 쉬운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에서는 친밀도 「中」의 경우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친밀도 「中」의 대화와 비교하여 기준자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지 않으면 대화 도중에 침묵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문인지 자신의 의견을 말한 후 상대방의 반응 혹은 반론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견을 이어가거나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턴 교체를 행하였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지지하는 의견 또는 경험담을 이야기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우선 JF2의 대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8)은 JF2와 처음 만난 JF2C가 나눈 대화의 일부로, 연인의 바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이야기하

11)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なんか」「なんだろう」と 같은 필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특징 중 하나이다. 林(2006)은 「なんか」가 담화표식의 하나로 화자가 적당한 표현을 찾는 동안 발화를 잇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뒤에 이어지는 발화 내용의 명확성, 확실성을 떨어뜨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 가능한 환경을 만들 때 사용한다고 지적하였다.

고 있다. JF2는 “용서할 수 있다”, JF2C는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8)JF2: えーと、うち何にしたんだっけ?。あ、そうだ。『許せる』にしたんだ。はい、  
で、『許せない』。

JF2C: 『許せない』。

JF2: /沈黙 2秒/なんかありますか?、理由とか。

JF2C: いや、特に。

JF2: んふふふ。

JF2C: 恋人も配偶者も (うんうん) どっちも私は同じだと (うんうんうんうん) 思って  
すけど。うーん、これを許してしまったら (うんうんうん) じゃなんでもオッケーって  
なっちゃうんじゃないかな (あー) という気持ちがあつて。

JF2: なるほど。あ、でも配偶者は『許せない』にしたんですけど。なんだろう。不倫っ  
て、言っちゃいけないみたいなのある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なんかもう配偶者の浮  
気ってほんとに自分の立場知っててやってるみたいなの、思うんですけど。なんだろ  
う。恋人の浮気は別に、まあまだなんか、なんだろう。家族じゃないしいっかなー  
<笑いながら>とかいって、思っちゃったんですけど。あ、ちなみにどっから浮気と  
かってあります?。[↑]

JF2와 JF2C의 대화를 살펴보면 침묵이 발생하여 JF2가 적극적으로 턴 교체  
를 시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JF2는 원활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자신의 말화  
가 끝난 다음에 「なんかありますか?、理由とか。」 「ちなみにどっから浮気と  
かってあります?」와 같이 청자가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질문을 던져 직접적으로 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sup>12)</sup>. 또한 JF2의 후반부 발화를 살펴보면 「なんだろう」 「なん  
か」 「まあ」와 같은 필러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적절한 표현 방  
법을 선택할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즉, 친밀도가 낮은 만큼 반대 의견을 표명할  
때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을 고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9)도 JF2와 JF2C의 대화인데, 여기에서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일에 대  
한 의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의견도 변경될 수 있다는 메시지

12) 의문문은 청자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직접 의문문과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간접 의문문으로 나뉜다. 답변의 유형에 따라서는 “예”, “아니요”로 답하는 판정 의문문과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수사적 의문문, 명령이나 권고가 궁극적 목적인 명령적 의문문, 감탄을 나타내는 감탄적 의문문 등이 있다.

를 전달하고 있다.

(9)JF2 : へー、そうなんだ。え、なんだろう。そっか。許せない。でもなんか人の話を聞いてるとそんなに許してやんなよみたいな思っちゃうんですけど、でも実際されたらどうかなみたいな。(うん) なんかされた経験がないからなんとも言えないけど。

JF2C : どうでしょうね。私も絶対許さないって思ってますけど(うんうん) 案外、許し、ある、かも、<笑いながら>許すかもしれない。

JF2 : うーん。なんか経験があるないで全然違いそうですね。

(10)은 JF1이 처음 만난 JF1C와 나눈 대화의 일부로,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과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지지하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의 의견에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9)와 유사하다.

(10)JF1 : 未就学児の英語教育、反対。<なんで?>{<}。

JF1C : <あー、私>{>}英語の教職持ってるんですけど。

JF1 : えー、とったんですね。

JF1C : とって、うーん、いやいや、ちっちゃい子はもうちょっと母語で、いろいろ豊かになった方がいいというか、なんか(うん) そんな発音とか耳とかは確かにちっちゃい子の方が(うん) 育つけど、(うん) でも英語って何を言うかがやっぱ重要なかなって思っ。

JF1 : あー、性格、内面的な問題?。[↑]

JF1C : そう、だから自分の中でいっぱい言葉とか考えとかを(うん) 畜えるのは(うん) 母語でもう集中的にいっぱい絵本読むとか(うん) 日本語の。(うん) 絵本読んでとか。で、後からでも英語力はなんとか(うーん) なるでしょって思っちゃいますね。

JF1 : へー。そういう考え方なんですね。(うーん) 私は、単純にちっちゃいころからもっと英語に触れさせてくれればもっと英語ができたのにつて(あー) 思っちゃって。/沈黙 1秒/思いましたけどね。

JF1C : そうですねー。

JF1 : うーん、そっか。でも私もオーストラリア行ってた時に全然英語喋れなくて、最初。(うん)ほんと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るのも、大変だ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少し間/行って10ヶ月ぐらいして、あー言う言葉より何を言うかが大切なんだなって

(あー) やっと気づいて。(あー) なんかもっと早く気づいてたらもっと楽しく過ごせたかもって (うーん) ちょっと思った。(あー) うーん、なるほど。

미취학아동의 영어교육에 대해 찬성 입장에서 이야기하던 JF1이 JF1C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변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JF1C의 「英語って何を言うかがやっぱ重要なのかなって思って」라는 의견에 맞춰 「言う言葉より何を言うかが大切なんだなってやっと気づいて」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다. 또한 (8)의 JF2와 JF2C의 대화와 마찬가지로 침묵이 흐르는 순간이 종종 있었는데 그로 인해 JF1의 발화에 사용되는 형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JF1은 자신이 「私は単純にちっちゃいころからもっと英語に触れさせてくれればもっと英語がきでたのになって思っちゃって」라고 말한 뒤 바로 턴 교체가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자 교체가 행해지지 않고 침묵이 이어지자 「思いましたけどね」라고 丁寧体를 사용하여 어색하게 자신의 발화를 마무리하고 있다. JF1이 JF1C의 의견에 맞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도 JF1C로부터 적극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자 「うーん、なるほど」와 같은 발화를 덧붙여 혼잣말을 하듯, 스스로 납득하였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5. 나가며

본고에서는 의견 불일치 장면에서 상대방에 대한 친밀도에 따라 담화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일본어모어화자는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본고의 분석을 통해 친밀도가 높은 상대방에게는 FTA에 해당하는 부동의를 직접적으로 표명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친밀도가 「高」에 해당하는 상대방에게는 부동의를 명시적으로 나타냈는데, 상대방의 의견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추궁하듯이 질문을 던져 반론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물론 간접적인 담화 전략도 확인되었다. 상대방의 반론이 전개되어 분위기가 고조되자 자신의 의견이 너무 단정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かな」「みたいな」와 같은 형태를 사용하였다. 또한 스피치 레벨을 非丁寧体에서 丁寧体로 이행하여 심적 거리를 확보하면서도 웃음을 수반하여 발화 장면이

어색해지는 것을 막는 경우도 있었다.

친밀도가 「中」에 해당하는 상대방과 「低」에 해당하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는 유사한 담화 전개 양상이 확인되었다. 우선 상대방의 의견에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였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도중에 끊지 않고 마지막까지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였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자신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잘 듣고 있다는 시그널을 적극적으로 보내면서 상대방이 이야기하기 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였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너무 단정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필러에 해당하는 발화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배려하였다.

그러나 친밀도가 「中」에 해당하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견을 고수한 반면, 친밀도가 「低」에 해당하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는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지지하는 형태로 대화를 마무리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처음 만난 사람이기는 하나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기저가 丁寧体였다는 점도 특징 중 하나이다. 또한 친밀도가 「低」에 해당하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는 기준자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지 않으면 대화 도중에 침묵이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 친밀도 「高」 「中」에 해당하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화자 교체, 턴 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준자가 상대방에게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질문을 던져 화자 교체, 턴 교체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도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 의해 친밀도와 부동의 장면에서의 담화 전개 양상의 특징이 일부분 밝혀졌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대화 참가자들의 성별과 연령 관계, 테마의 성격에 따라 담화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번에 사용한 데이터 양이 적어 본고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앞으로 대화 참가자들의 성별과 연령 관계, 테마의 성격을 고려하여 데이터 양을 늘리면서 본고의 결과를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임영철(2008) 『한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일본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태학사

- 李吉鎔(2001) 「韓・日両言語の反対意見表明行動の対照研究：談話構造とスキーマを中心として」 『阪大日本語研究』 13, 大阪大学, pp.19-32.
- \_\_\_\_\_ (2003) 「韓・日両言語の反対意見表明行動の対照研究：改まり度による表現形式の使い分けを中心に」 『阪大日本語研究』 15, 大阪大学, pp.67-88.
- 李善雅(2001) 「議論の場における言語行動－日本語母語話者と韓国人学習者の相違－」 『日本語教育』 111, 日本語教育学会, pp.36-45.
- 任榮哲・井出理咲子(2004) 『箸とチョッカラーことばと文化の日韓比較－』 大修館書店
- 宇佐美まゆみ(2005) 『言語情報学研究報告6 自然会話分析と会話教育－統合的モジュール作成への模索－』 東京外国語大学, pp.301-303.
- 大塚淳子(2005) 「不同意の表明－日本人大学生の場合－」 『日本語と日本文化』 31, 大阪大学, pp.81-92.
- 木山幸子(2005) 「日本語の雑談における不同意の様相：会話教育への示唆」 『言語情報学研究報告6 自然会話分析と会話教育－統合的モジュール作成への模索－』 東京外国語大学, pp.165-182.
- 齊藤明美(2005) 『ことばと文化の日韓比較－相互理解をめざして－』 世界理想社
- 白井香織(2009) 「不同意の間接的発話行為に関する異文化比較研究」 『千葉商大紀要』 47, 千葉商科大学, pp.87-101.
- 張允娥(2017) 「日韓同性間の会話における不同意・否定的評価の相互行為：ジェンダーとポライトネスの観点からみる対立と冗談」 『阪大日本語研究』 29, 大阪大学, pp.101-128.
- 林千賀(2006) 「ディスコース・マーカ－「なんか」の発達－意味の漂泊化－」 『昭和女子大学大学院言語教育・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1, 昭和女子大学, pp.39-51.
- 洪珉杓(2007) 『日韓の言語文化の理解』 風間書房
- 山根智恵(2002) 『日本語の談話におけるファイラー』 くろしお出版
- 楊虹(2015) 「話し合いにおける不同意表明発話のモダリティ－中日接触場面と中国語・日本語母語場面の比較から－」 『研究年報』 46, 鹿児島県立短期大学, pp.87-102.
- Leslie M. Beebe and Tomoko Takahashi(1989) Sociolinguistic Variation in Face-Threatening Speech Acts : Chastisement and Disagreement, "The Dynamic Interlanguage", Springer, pp.199-218.

논문 투고 일자 : 2018. 03. 14
-------------------------

논문 심사 일자 : 2018. 04. 30
-------------------------

게재 확정 일자 : 2018. 05. 09
-------------------------

< 要 旨 >

親密度と談話展開様相に関する一考察  
-意見不一致場面を中心に-

金アラン

本稿では親密度によって不同意の示し方が異な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日本人大学生による自然会話をデータとして分析した結果、次のようなことが分かった。親密度が「高」に該当する場合には「でも」「いや」のような言語形式を用いたり、相手の意見を否定的に評価したりして不同意を明示的に示していた。また、相手の反論を誘導する発話が確認されたほか、非丁寧体から丁寧体へとスピーチレベルをシフトすることで心的距離を確保する場合も見受けられた。親密度が「中」と「低」に該当する場合は、相手の意見を全面的に否定しない点、自分の意見を話す時にフィラーを多く使用する点などで共通点を見せていた。しかし、親密度が「中」の場合は相手の意見に部分的に同意しながらも自分の意見を変えることはなかったのに対し、親密度が「低」に該当する場合は最終的に相手の意見を支持する意見や経験談を話して会話を終わらせた点で違いが見られた。

Intimacy and Discourse Development  
-Focus on the situations of disagreement-

Kim, Ah-Ran

This study reveals that the way dissent is expressed vari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timacy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An analysis of natural conversations between Japanese college students yielded these findings: first, in contexts with a “high” degree of intimacy, dissenters explicitly expressed their disagreement, using linguistic forms such as *demo* [‘but’], *iya* [‘no’], and/or rated the other person’s opinion negatively. There were also instances of utterances designed to elicit the other person’s counterargument, as well as instances of dissenters securing a psychological distance through a shift in speech style from the plain to the polite form. Contexts with a “medium” or “low” degree of intimacy shared several features, such as the fact that dissenters only partially negated the other person’s opinion, and that when dissenters expressed their own opinions, they used a large amount of fillers. However, some differences were also observed between these two groups. In “medium” intimacy contexts, while dissenters expressed partial agreement with the other person, they did not change their own opinions. In “low” intimacy contexts, on the other hand, dissenters ultimately expressed an opinion or personal story that supported the other person’s opinion, and then ended the conversation.